

2023 선진 우수 장사정책 & 장사시설 국외정책연수단

공무 국외 연수 결과보고서

- ☐ 연수기간: 2023. 4. 12.(수) ~ 4. 19.(수) ▷ 6박 8일
- ☐ 출 장 지: 뉴질랜드, 호주
- ☐ 참가인원: 2명 ▷ 행복복지본부장, 장사시설팀장
- ☐ 주 제: 해외 선진 장사 정책 연수
- ☐ 출장목적: 장례문화 서비스와 장사 종합시설 조성 및 운영현황 파악
⇒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의 기틀마련 및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으로 공단 운영시설과의 접목 및 도입방안 모색
- ☐ 방 문 지
 - 뉴질랜드: 오클랜드 메모리얼 파크, 오스본스 상조 서비스
미누카우 메모리얼가든, 사우스헤드묘지, 웨이버리 묘지
 - 호 주: 캐슬브룩 메모리얼 파크, 루크우드 묘지
한솔장례 서비스, 시드니 추모 상조 서비스

|| 목 차 ||

I. 연수개요

○ 연수목적	1
○ 연수내용	1
○ 방문기관 및 주요내용	1
○ 출장일정	2
○ 대상국가 장사문화 사전정보	4

II. 방문 장사시설

○ 오클랜드 메모리얼 파크&묘지	5
○ 오스본스 상조 서비스	7
○ 캐슬브룩 메모리얼 파크	9
○ 한솔장례서비스	11
○ 시드니 추모 상조 서비스	12
○ 루크우드 묘지	14

III. 기타 현장견학

○ 미누카우 메모리얼 가든	16
○ 사우스 헤드 묘지	16
○ 웨이버리 묘지	17

IV. 시사점 및 제언

○ 시사점	18
○ 제언	18

공무 국외 (뉴질랜드·호주) 연수 결과보고서

뉴질랜드 및 호주의 장례문화 서비스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공단과의 접목과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한 국외 출장결과 보고임

I 연수개요

□ 연수목적

- 장묘 협회 네트워크와 함께 추모 공원과 공원묘지로 유명한 뉴질랜드와 호주의 장례문화 서비스와 관련 종합시설 조성 및 운영현황 파악
-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의 기틀 마련 및 정책 입안자 및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공단과의 접목과 도입방안 모색, 개선사항 검토 및 정보교류

□ 연수내용

- 연 수 단: 2023 선진 우수 장사정책 & 장사시설 국외정책연수단
- 주 제: 해외 선진 장사 정책 연수
- 지 역: 뉴질랜드, 호주
- 기 간: 2023. 4. 12. ~ 4. 19.(6박 8일)

□ 방문기관 및 주요내용

뉴 질 랜 드	■ Auckland Memorial Park & Cemetery(오클랜드 메모리얼 파크&묘지) 수백만달러의 조경비용이 들어간 오클랜드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추모공원
	■ Osbornes Funeral Directors (오스본스 상조 서비스) 200년 역사를 가진 역사적인 기념공원(뉴질랜드 장묘협회 로토루아 지역 대표)
호 주	■ Castlebrook memorial park cemetery (캐슬브룩 메모리얼 파크) 시드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묘지 중 하나
	■ HANSOL F.S. (한솔 장례 서비스) 시드니 한인 지역사회를 위한 장례 세미나를 주관하는 장례서비스 업체
	■ Sydney Memorial Cremation (시드니 추모 상조 서비스) 자연장, 해양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화장 업체
	■ Rookwood Cemetery (루크우드 묘지) 호주 최고(最古), 최대 규모의 다민족/다문화를 수용하는 공동묘지

출장일정

날 짜	지 역	교통편	시간	상세일정
4. 12. (수)	부산 인천	KTX KE411	10:20 17:25	부산출발 인천출발
4. 13. (목)	오클랜드 로토루아	현지 차량	07:50 10:00 13:00 17:00	오클랜드 도착 * 공식방문: Auckland Memorial Park & Cemetery (오클랜드 메모리얼 파크&묘지) 중식 후 로토루아로 이동 연수단 소개 및 공식일정 사전 준비
4. 14. (금)	로토루아 오클랜드	현지 차량	10:00 13:00 17:00	* 공식방문: Osbornes Funeral Directors (오스본스 상조 서비스) 중식 후 오클랜드로 이동 숙소도착 및 휴식
4. 15. (토)	오클랜드 시드니	현지 차량 D7 289 현지차량	10:00 13:00 19:30 21:00	* 현장견학: Manukau Memorial Gardens (마누카우 메모리얼 가든) 공항이동 시드니 도착 숙소도착 및 휴식
4. 16. (일)	시드니	현지 차량	10:00 14:00 18:00	* 현장견학: South head Cemetery (사우스 헤드 묘지) * 현장견학: Waverley Cemetery (웨이버리 묘지) 숙소도착 및 휴식
4. 17. (월)	시드니	현지 차량	10:00 14:00 18:00	* 공식방문: Castlebrook memorial park cemetery (캐슬브룩 메모리얼 파크) * 공식방문: HANSOL F.S. (한솔 장례 서비스) 숙소도착 및 휴식
4. 18. (화)	시드니	현지 차량	10:00 14:00 18:00	* 공식방문: Sydney Memorial Cremation (시드니 추모 상조 서비스) * 공식방문: Rookwood Cemetery (루크우드 묘지) 숙소도착 및 휴식
4. 19. (수)	시드니 인천 부산	D7289 KTX	04:00 07:50 17:45 21:16	공항이동 시드니 출발 인천도착 부산출발

□ 대상국가 장사문화 사전정보

[뉴질랜드]

-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장례식과 추모 예배가 교회, 사원, 모스크, 유대인 회당, 장례식장 예배실, 지자체 청사 그리고 교외 가든 등에서 개최되고, 부고(notice)와 고인의 삶을 설명해주는 광고(obituary)가 신문에 게재된다.
- 뉴질랜드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로 인하여 각기 다른 전통적인 방법으로 장례를 진행한다. 보통 시신에 대해서 엠바밍(화화약품에 의한 보존)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장례식에는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만 참석한다. 아일랜드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장례식 후 예식이 따로 있어서 조문객들과 음식을 나눈다.
- 공원묘지는 영국 국교회, 가톨릭, 유대교 등 종교적 신념에 따라 분할되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연장(natural burial) 또는 생태장(eco-burial)을 선호하는 데, 이런 장법에서는 엠바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화장 뉴질랜드에서는 1909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1960년대 들어 화장률이 대폭 증가해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자 사망자의 60%가 화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부 종교는 화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 고인의 유족들이 장례비용이 없다고 하거나 고인이 장기 기증자일 경우, 장례 예배는 무상으로 진행된다. 장기 기증자일 경우, 유족에게는 장례식 관련 모든 비용이 면제되고, 추가로 베일, 양초, 꽃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원주민인 마우리족의 애도 의례는 보통 3일 동안 가족과 친구들이 마래(marae)라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고인을 애도하면서 지낸다. 도시화로 인하여 근대적 건물이나 자택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 마우리족 장례식이 행해지는 마래(marae)



▲ 오클랜드 메모리얼 파크

□ 대상국가 장사문화 사전정보

[호 주]

- 호주에서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큰 사건으로 여기고 고인의 사망을 다루는 방식은 동일하나, 원주민(Aboriginal)과 이주민(Non-Indigenous)의 장례풍습 및 종교(루터교, 개신교, 무슬림 등), 인종에 따라 죽음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의례들은 매장, 화장, 봉안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장사시설은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다.
- 1969년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지역에서 발견된 4만년 내지 6만8천년 전의 유골은 인류의 화장 역사 중 가장 오래된 관습이 호주 대륙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화장은 호주에서 가장 선호하는 장례방식이 되었으며, 화장율은 80% 정도이다.
- 호주 장사법은 장례지도사 의뢰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으나, 많은 호주인들은 장례지도사에게 의뢰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례식은 사망 후 7~10일 정도 후에 이루어지며,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만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종교적인 사유로 화장을 금기시하고 있으며, 호주의 광활한 토지와 희박한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매장은 화장보다 고가의 장례방법이다.
- 최근 호주 시드니 지역에 묘지난이 예고되면서 이를 해소할 갖가지 방안이 동원되고 있다. 묘지 재활용을 위하여 부패를 촉진하기 위한 실험 및 호주 내 처음으로 지하 공동묘지 마련도 검토되고 있다. 호주 최대 공동묘지인 시드니의 록우드(Rookwood) 공동묘지 측은 머지않아 쓸 수 있는 묘역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기존 묘소의 재활용을 위한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애플오리지널(호주원주민) 장례식



▲ 캐슬브룩 메모리얼 파크

Ⅱ 방문 장사시설

1 Auckland Memorial Park & Cemetery

오클랜드 메모리얼 파크 & 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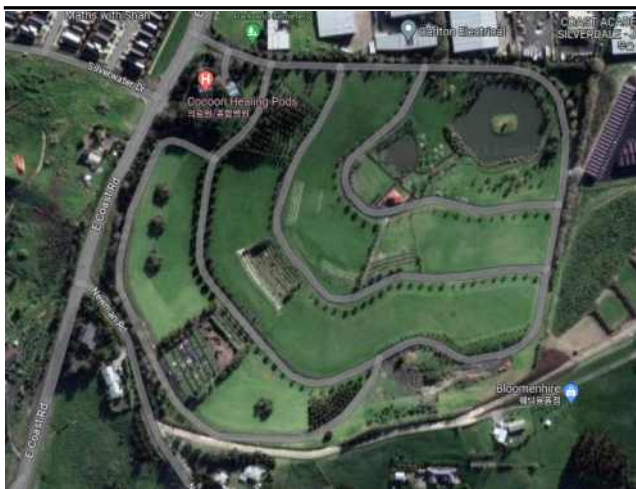
시설소개

오클랜드 기념 공원 & 묘지는 하버 브리지에서 북쪽으로 17분 거리에 있는 실버데일에 위치해 있다. 하우리키 만을 향해 북동쪽을 바라보는 자연 원형 극장에 자리잡은 이곳은 고요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수백만 달러의 조경 프로그램으로 완성되었다. 모든 매장지가 주변 시골의 평화로움을 즐길 수 있게 했으며, 수중 정원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했다.

오클랜드를 대표하는 추모공원인 이곳에는 장례식장과 납골당, 묘지, 갤러리 등의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뉴질랜드 장묘 협회의 회원사이기도 하여 뉴질랜드의 매장 현황과 장묘법에 대한 풍부한 사례 및 최신 이슈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며, 조경학 측면에서도 완성도 있는 추모공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으로 평가된다.

□ 시설개요

- 위치: 2163 East Coast Road. Silverdale. Auckland 0993
- 시설규모: 대지면적 8천m² 정도
- 주요시설: 묘지(구역별 다양), 장례식장, 봉안당, 예배당 등



▲ 시설현황



▲ 시설배치도

□ 주요 매장지 현황

구역명	주요내용	이용비용(분골기준)
Rose Gardens	장미 등 화단으로 가꾸어진 매장지	440만원/2구
golden Ash Grove	다양한 기념나무가 있는 매장지	440만원/2구
Tranquility Gardens	한적하고 조용한 정원	140만원/2구
Garden of Remembrance	공원과 호수주변에 마련된 매장지	230만원/2구
Memorial Seats	의자가 배치된 매장지	1,200만원/4구
Family Columbarium	가족단위로 사용 가능한 야외 벽식봉안단	1,800만원/12구

구역명	주 요 내 용	이용비용
Enclosed Trees	수목 주변으로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	440만원/2구
Family Memorial Trees	가족만 가능한 수목 주변 매장지	1,200만원/4구
Lakeside Burial Trees	호수주변에 기념비 형태의 매장지	6,400만원/6구
Hibiscus Lawn	잔디묘지	800만원/4구
Lake View, Jade&Golden Terraces	테라스 형태의 묘지	200만원/4구

□ 시설 견학 및 면담 내용

- 시설소유는 정부이며, 관리사는 시설운영 및 추가 개발을 시행중임.
- 비교적 최근(2000년도)에 개관하였으며, 사용율(예매포함) 75% 정도임
- 현재에도 계속 개발중으로 향후 80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 주민의 경미한 반대가 일부 있으나 지역주민의 동의 후 진행중임.
- 뉴질랜드의 다양한 장례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공원 내 조경은 전문 조경회사와 계약하여 수목, 초화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 매장지에 대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 후 공원에서 장례식, 예배 등 장례 절차 진행이 가능함. 향후 상황변경시 타인에게 사용권 양도 가능
- 대지 사용권을 구입할 경우 일정 구역에 산분장도 가능함.
- 뉴질랜드는 문화 및 종교적 신념의 다양성의 존중이 우선시 되므로 묘지(매장지) 내에서 각종 문화·종교·인종별 제례행위가 가능함.
- 각 매장지별 비용은 상이하며, 매장지 구매가에는 10%의 영구 유지 관리 기금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지속적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활용됨.
- 공원 내 명판, 묘비 등은 설치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며, 뉴질랜드 장묘 관련 법률에 따라 승인된 묘석 제조인에 의해 설치되어야 함.



▲ 화단(화초)장

▲ 수목장

▲ 잔디장

▲ 가족 수목장

시설소개

Osborne Funeral Directors는 로토루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상조 서비스 업체로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 최고의 명성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며 최상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대 185명까지 입장 가능한 채플(예배당)과 라이브스트링 온라인 서비스, 납골당, 케이터링 서비스, 차량제공 등 장례 절차와 관련된 실제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 역시 뉴질랜드 장묘 협회의 회원사이자 이곳의 대표는 장묘 협회 부회장을 겸하고 있어 뉴질랜드 장묘문화와 장례법, 코로나 이후 최근 이슈 및 최근 달라진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기초를 들을 수 있는 지역 내 최고 기관으로 꼽힌다.

☐ 시설개요

- 위 치: 197 Old Taupo Road, Utuhina, Rotorua 3015
- 주요시설: 봉안당, 예배당
- 주요업무: 장례절차 진행 및 장례식장, 예배당, 봉안시설 등 운영



▲ 시설전경(인터넷 자료)

☐ 운영현황

- 로토루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상조 서비스 업체(1981. 12월 개원)
- 예배실, 장례식 녹화 및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봉안당, 연회 및 차량제공 등 수행



▲ 주 출입구



▲ 예배당



▲ 장례용품

□ 시설 견학 및 면담 내용

- 본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화된 서비스는?
 - ▷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지인을 위한 라이브스트리밍 서비스와 온라인 추모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녹화된 장례 영상과 추모 메시지는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 및 추모글 등록이 가능함.
- 뉴질랜드의 장례관련 기준, 장례지도사 자격 및 운영기준은?
 - ▷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는 없으며, 장례방법 및 장소에 대한 규제는 없는 편임. 대부분 장례협회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음.
 - ▷ 장례절차는 사망 후 지역장례업체로 이송되어 입관하고, 열흘 정도 이후 장례식이 개최되며, 대부분 고인의 유언에 따라 매장, 화장 등이 결정됨
- 장례식장이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의 혐오감는 없는지?
 - ▷ 장례식장 설치지역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은 거의 없음. 화장시설 또는 묘지의 신설시에는 당연히 거부감이 있음.
- 개인의 장례비용 수준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 ▷ 일반적으로 화장시에는 700만원, 매장시에는 11,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시신 기증 시에는 장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도 화장비용은 무상이며, 묘지에 산골처리하고 있음.
- 한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매장, 봉안기수 수급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뉴질랜드의 인구밀도가 낮아 이러한 우려는 없는지?
 - ▷ 뉴질랜드는 인구밀도는 낮으나 도시 인구 집중도는 매우 높은 실정이며, 개인토지에는 매장이 금지되어 있고 승인된 묘지 지역에만 가능함. 도시지역에는 묘지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묘지 재활용, 봉안시설 확충, 자연장, 해양장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시설소개 및 면담



▲ 장례용품(봉안함)



▲ 관 제작

시설소개

캐슬브룩 메모리얼 파크는 호주 회사인 InvoCare의 회원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묘지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이다. 부지, 서비스 및 시설의 품질에 대한 새로운 기술과 투자를 제공함으로써 혁신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곳은 수년 동안 봉사해 온 지역 사회 내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모든 신앙과 문화, 신념을 존중하여 개인적이고 귀중한 기념관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다. 이곳의 화장법 및 추모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바위정원, 정자, 바위틈, 추모의자, 장미정원, 분골함 등으로 고인과 유가족이 원하는 형태로 선택할 수 있으며, 장례 절차 역시 여러 가지 문화권의 옵션이 있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 시설개요

- 위치: 712-746 Windsor Road, Rouse Hill NSW 2155
- 운영시간: 연중무휴로 주간 시간대 개방
- 시설규모: 대지면적 73만㎡ 정도
- 주요시설: 묘지(가족묘, 비석묘, 잔디장), 화장시설, 예배당, 카페·화원
 봉안시설(암석부지, 정자, 벽담, 의자, 장미정원) 등

□ 주요 시설현황

시설종류	시설명	주요내용
장례시설	예배당	120석 규모, 녹화영상 제공
	카페 및 화원	휴게공간을 제공하며, 생화를 구매하여 추모 가능
화장시설	화장장	다양한 화장옵션(불교, 필리핀형, 중국기독교형)
매장형 추모시설	묘비	화강암을 사용한 다양한 형태의 묘비설치 가능
	개인묘지	상속이 가능하며 다양하게 정원을 꾸밀 수 있음
	지하묘지	지상 기념비 아래에 명판, 화병, 조명으로 장식된 지하묘지
	암석묘역	정원에 나란히 마련된 화강석으로 꾸며진 묘역
	잔디매장	잔디에 매장하고 다양한 표지석으로 이루어진 묘역
화장형 추모시설	봉안시설	고인 표지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봉안시설
	정자시설	정자를 중심으로 작은 개인정원이 조성된 봉안시설
	의자형 추모시설	의자가 있는 특별한 추모시설
	장미정원	다양한 색상의 장미가 식재된 정원형 추모시설



▲ 잔디매장



▲ 의자형 추모시설



▲ 화장시설

□ 시설 견학 및 면담 내용

- 본 시설은 InvoCare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장례식장, 묘지, 화장시설을 운영하는 대규모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음.
- 시드니 지역에서 아름다운 묘지공원 중 하나로 과거를 기념하기 위해 방문하여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회상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었음.
- 다문화, 인종에 대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추모공간과 종교적 상징물 등을 위하여 중국식 기독교, 필리핀, 불교, 힌두교 등을 위한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무연고 화장유골은 1년이 경과할 경우 화장시설 부지내에 산골됨
- 화장시설은 2기로 화장이 종료되면 화장로를 식히지않고 아래로 유골을 낙하시켜 별도로 수습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화장시간은 1.5시간, 유골수습 0.5시간으로 총 2시간이 소요됨.



▲ 상속가능한 개인묘지



▲ 묘비형 묘역



▲ 봉안시설



▲ 암석묘역



▲ 잔디형 매장지



▲ 책자형 고인묘지



▲ 상속가능한 개인묘지



▲ 묘비설치형 표지판



▲ 다양한 형태의 묘역 배치

시설소개

한솔장례(HANSOL F.S.)는 2015년부터 시드니에서 한인이 직접 운영하는 전문 장례서비스 회사이다. 호주에 정착해서 살고있는 한인 이민 1세대 또는 2세대를 위한 장례서비스를 한국인의 문화에 맞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 사회인 호주의 상황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맞춤형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곳은 70평 규모의 장례식장, 한국 전통식 빈소 공간, 조문객 접객실, 주방 및 유가족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례식, 추도식, 입관식 등의 과정을 대행하고 있다.

이곳은 지역사회 단체를 위한 장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 NSW거주 한인들을 위한 한글 장례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 시설개요

- 위 치: 12 pike St. Rydalmere NSW 2116
- 주요시설: 예식장, 빈소 2, 접객실 2, 주방, 유족휴게실 등

□ 시설견학 및 면담

- 한국 이민자는 3일장을 선호하나, 호주의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7일장 이상이 대부분이다. 호주 현지인들과는 달리 음식을 접대하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음.
- 호주 이민 1세대의 경우 매장 비율이 50% 정도로 화장보다 매장을 선호하였으나, 2~3세대는 80% 정도가 화장으로 장례방법을 선택함.
-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장례기간이 길어 방부처리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음.
- 지역의 한인들을 위한 장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이민자들을 위한 장례 안내를 위한 책자를 발간하여 도움을 주고 있음
- 유가족이 원할경우 화장시 위험물을 제외한 고인의 유품 등을 함께 화장할 수 있으며, 심장박동기 등 위험물은 사전에 제거토록 규정되어 있음.



▲ 시설안내



▲ 질의 및 답변



▲ 예식장 현황



▲ 가족휴게실



▲ 접객실



▲ 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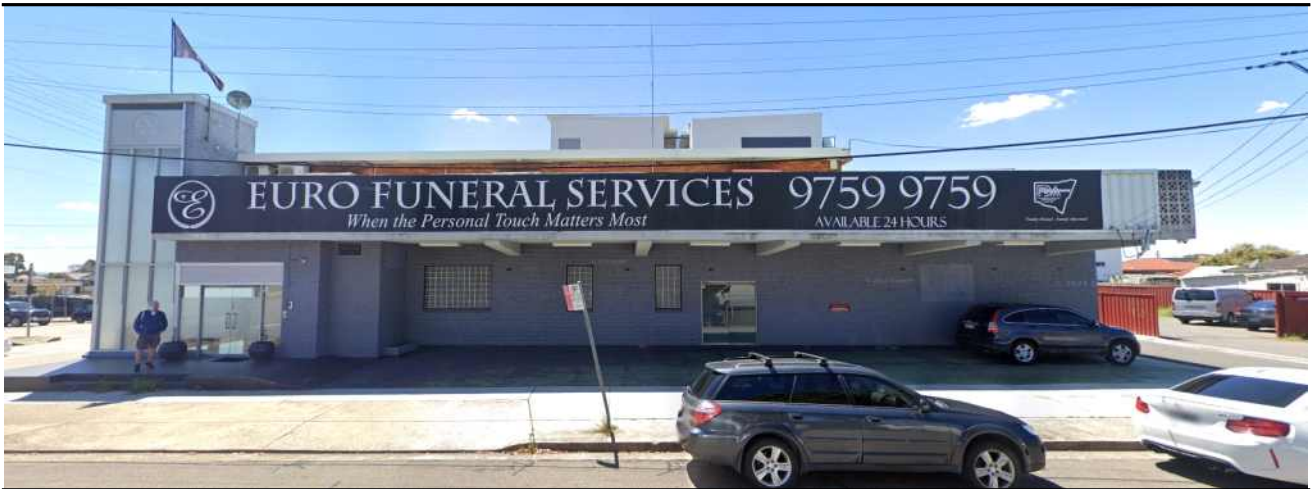
시설소개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기 때문에 장례산업은 친환경 화장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시드니 추모 장사서비스는 에코 & 바다 고별 기념관을 통해 이런 변화에 최적화된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장례 및 해양장은 유골이 자연적으로 생분해 될 수 있도록 분해성 향아리와 친환경적 추모 물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 시설개요

- 위치: 890 Canterbury Rd. Roselands NSW 2196
- 주요시설: 예배실, 입관실, 추모기념관 등
- 주요업무: 시드니 장례서비스 업체로 자연장, 해양장 서비스를 제공



▲ 시설전경(인터넷 자료)

□ 운영현황

- 시드니지역의 상조서비스 업체로 일반 매·화장 등 장례절차 진행 및 친환경 해양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유족의 참석 없이 장례, 화장 및 유골봉안 등 장례서비스 대행



▲ 예배실



▲ 입관실



▲ 장례용품

□ 시설 견학 및 면담 내용

- 독특하고 환경 친화적인 해양장(Sea Farewell)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일반 장례절차 및 간략한 화장 장례도 진행하고 있음.
- 배게형 유골함의 경우 자연적으로 생분해되어 유골을 천천히 방출할 수 있어 손으로 뿌리는 것 보다 품격있게 해양장을 진행할 수 있음. 친환경 유골함은 튜브형태, 배게형태 및 거북이형태 등 다양하게 선택 가능함
- 최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장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해양장에 대한 수요도 차츰 많아지고 있음.



▲ 화장장에서 배달된 유골

▲ 배게형 유골함(해양장)

▲ 친환경 유골함(산골형)

- 군인과 퇴역군인, 재향 군인 및 부양가족은 해군 또는 해안 경비대에서 무료로 유해를 바다에 뿌릴 수 있으며, 해안에서 3마일(4.8km)이상 떨어진 곳에서 유골을 뿌리도록 권고하고 있음.
- 시드니의 화장율은 90년대 중반 15%에서 2014년 50% 정도였고, 현재 화장율은 약 80% 정도임. 일부 묘지에서 산분구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호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화장된 유골을 고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에 산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함.
- 대부분의 종교에서 화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로마 카톨릭 신자의 경우 화장은 허용하지만 유골은 흩어지지 않고 봉안 또는 매장되어야 함. 무슬림·그리스·유대 정교회는 화장을 금지하고 있으며, 매장비용의 증가에 따라 교리 등을 완화하여 화장을 허용하는 경우도 차츰 많아짐.



▲ 화장안내(홍보)영상

▲ 고인 운구장소

▲ 화장용 종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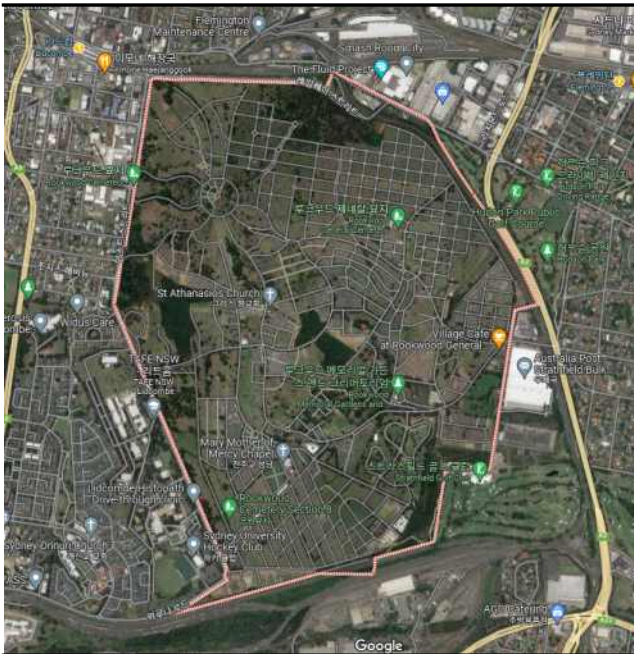
시설소개

루크우드 묘지는 빅토리아 시대 최대 규모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며 가장 다문화적인 묘지이다. 430개가 넘는 독특한 매장지, 역사 및 현대 기념관, 문화적으로 특이한 정원, 아름다운 예배당 및 최첨단 기능의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유가족의 요구와 다양한 지역사회의 신념을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양주의 경우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관할하는 곳이 별로 없으며, 루크우드 묘지 역시 큰 규모로 여러업체에서 구획별로 구분하여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묘지는 루터교, 개신교, 무슬림 등의 종교별 부지와 마오리 전통 묘지, 마케도니아, 유대인 등의 인종별 묘지, 개인묘지 및 특별묘 등 규모에 따른 다양한 매장방식을 제공한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묘비, 명판, 흉상, 기념 악세사리, 사진 영정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루크우드에는 홀로코스트 희생자와 전시에 사망한 상선을 기리는 사당을 포함해 수많은 추모 사당이 있으며,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 시설개요

- 위치: East Street Entrance, Lidcombe NSW 2141
- 시설규모: 대지면적 8천㎡ 정도
- 주요시설: 묘지(90여종), 예배당 3개소, 화장시설, 화원, 카페 등



▲ 시설현황



▲ 화장시설(1925년 개원)

□ 다양한 매장지 현황(90여종의 매장 및 봉안구역)

장로교인	세르비아인	정교회
루터교인	마오리족	마케도니아 정교회
감리교인	중국인	에스토니아인
상송가능한 묘원	마케도니아인	라트비아인
유대교인	이슬람교도	독일채플담
드루즈파	아르메니아인	세르비아 정교회
만다이즘 교도	아시리아인	러시아정교회

□ 시설 견학 및 면담 내용

- 90종류 이상의 문화, 인종 및 종교 집단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각각의 다양한 매장 및 봉안유형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묘지 및 봉안시설을 혼합한 마우솔레움(mausoleum, 묘)을 보유하고 있음.
- 매장 유형에 따라 15가지 종류의 매장 유형이 제공됨

잔디 매장	추모물 매장	중국식 잔디 매장
중국식 추모물 매장	정교회 잔디 매장	정교회 추모물 매장
카톨릭식 잔디매장	카톨릭식 추모물 매장	유대식 매장
이슬람식 매장	태평양 섬 주민 매장	교유 매장
건물식 묘지 매장	건물식 아치형 매장	웨스트 민스터 건물식 묘지

- 시드니의 화장 및 매장율을 감안하면 2026년경 묘지부족 현상이 발생되어 2036년경부터 부족 현상이 심화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경우 사망한 사람 중 70%가 화장이 되지만, 이슬람교와 유대교, 그리스 정교회 등 일부 종교 신도의 경우 여전히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인근 부지를 이용하여 공동묘지로 전환하려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되는 등 묘지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중임.



▲ 봉안담



▲ 비석형 봉안시설



▲ 석조형 매장시설



▲ 석조형 봉안시설



▲ 이탈리아식 매장시설



▲ 개인소유 봉안시설



▲ 벽식 봉안담



▲ 다양한 매장시설



▲ 암석형 봉안시설

Ⅲ 기타 현장견학

1 Manukau Memorial Gardens 마누카우 메모리얼 가든

□ 시설개요 및 방문후기

- 위 치: 361 Puhinui Road, Wiri, Auckland 2025, New Zealand
- 주요시설: 예배당, 봉안 및 매장묘지, 연회장
- 운영시간: 하절기 7:30~20:30 / 동절기 7:30~18:00
- 방문후기
 - ▷ 도시 외곽지역의 넓은 공원에 여유 있게 묘지가 구획되어 있으며, 특이한 조형물이나 꾸밈없이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 내부 순환도로 및 예배당, 연회장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구획됨



▲ 묘지전경



▲ 묘지전경



▲ 묘지전경

2 South head Cemetery 사우스 헤드 묘지

□ 시설개요 및 방문후기

- 위 치: Old South Head Rd, Vaucluse NSW 2030, Australia
- 주요시설: 묘지, 면적 9,000m² 정도
- 방문후기
 - ▷ 주택지 및 공동주택 앞에 오래된 묘지가 있다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러웠으나, 죽음과 연계되지 않은 전통문화와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음.



▲ 묘지 출입구



▲ 묘원 전경



▲ 묘원 전경

□ 시설개요 및 방문후기

- 위 치: St Thomas St &, Trafalgar St, Bronte NSW 2024, Australia
- 시설현황: 면적 160,000㎡, 관리동
- 방문후기
 - ▷ 사전 조사결과 South Head 묘지와 함께 웨이버리 지역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로 각각의 묘지에 대하여 기념물과 이곳에 묻힌 유명인들에 대하여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를 꾸준히 만들어 왔었던 느낌이다.
 - ▷ 바다 위의 절벽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꽤 의미 있는 묘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 현재 소수의 매장자리만이 남아 있으며, 다른 묘지시설과 동일하게 비석(석재)의 가공 및 설치에 승인된 업체만 가능하며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 묘원 안내판



▲ 묘원 전경



▲ 묘원 시설

연 수 사 진



▲ 오클랜드 메모리얼 파크



▲ 오스본즈 상조 서비스



▲ 마우카우 메모리얼 가든



▲ 사우스헤드 묘지



▲ 웨이버리 묘지



▲ 캐슬브룩 메모리얼 파크



▲ 한솔 장례 서비스



▲ 시드니 추모 상조서비스



▲ 루크우드 묘지

IV 시사점 및 제언

□ 시사점

뉴질랜드와 호주의 장례문화와 시설현황 파악을 위하여 다양한 실제 사례와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 삶의 최종 단계인 장례절차에서 인종·문화·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전반적으로 정착되고 자리잡혔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 전통과 이야기가 있으며 고인을 기억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심과 주변 지역의 공원형 묘지를 볼 수 있었다.
- 또한, 국내와 같이 도시집중도가 높은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는 묘지 및 봉안장소의 부족에 따른 다양한 대책(묘지 재사용을 위한 시신부패 촉진 지하묘지 개발)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친환경 산분장, 해양장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및 확산 노력이 국외 연수 내내 다가왔다.

□ 제언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금회 국외 연수 중 느꼈던 것들에 대하여 향후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1. 인종·문화·종교 등 장사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수용성 확보

- 고인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떠나보내며 추억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 문화적인 차이와 다름을 다루는 방법은 우리가 좀 더 배워야 한다. 한국 또한 다문화 국가로의 진입과 국내에 거주하는 세계인들을 위한 장례행정과 장사시설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 전용 묘지나 봉안구역 조성, 예배시설 건립 등 거창한 사안은 미뤄두고, 방문한 유족에게 고인의 국적과 인종에 따른 장례문화에 대하여 먼저 제안하고 유족과 협의 한다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국가·인종별 장례, 제상준비, 화장, 봉안 등 장례 매뉴얼 제작

(예. 일본인은 화장 후 분골 여부 확인,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식재료 등)

■ 국내에서 사망한 외국인의 국가별 국외 이송 방법에 대한 자료 정리

(예. 대사관에 문의 하세요 X)

2.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뉴질랜드 오스본스 상조 서비스의 홈페이지에는 장례식을 치른 대부분 고인의 장례영상과 추모게시판이 만들어져 있으며(유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사망 후 10년이 지난 고인의 추모 게시판에도 여전히 추모글이 작성되고 있었다.
- 지속적인 묘지 공원화 및 고객 편의시설 확충 등 물리적인 공간 조성도 중요하지만, 감성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부산영락공원이 유족과 고인에게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봉안된 고인별 추모 게시판(Web) 제작 검토

- 가족, 지인이 언제든지 추모의 글을 등록하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 마련

3. 해양장

- 금회 방문지 가운데 한 상조서비스 회사(Sydney Memorial Cremation)에서 해양장을 진행 중이었으며, 국내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연간 3~4천건의 해양장이 이루어져 부산에 연간 필요한 봉안기수의 20%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해양장의 경우 삼면이 바다인 국내에서 부족한 장묘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친환경적 장묘방법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부산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도입 및 확대된다면 지역 봉안수급의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향후 해양장의 활성화와 공공주도의 공설 해양장 서비스 공급에 대비하여 우리 공단에서도 해양장에 대한 관련 규정 검토와 기술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업무영역의 확대와 지역 봉안수급의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양장의 활성화와 공공 서비스 공급대비 사전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 마련

- 선제적 기술확보와 관련규정 검토 등으로 공단의 업무영역 확대. 끝.